

불타는 금요일

함께 땀 준비 됐다



여자배구, 브라질과 결승행 놓고 격돌

에이스 김연경 집중 견제 예상
다양한 공격 루트 등 전략 필요
한국 팬 '터키 산불 위로' 기부
코트 밖에서도 '팀코리아' 알려

6일 밤 여자배구 응원 열기로 대한민국이 뜨거워진다.

극적인 경기들을 펼치며 4강을 이룬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6일 오후 9시 브라질을 상대로 결승 진출을 다룬다.

한국은 김연경으로 '원팀'이 돼 기적의 승부를 펼쳤다. 폴세트 접전 끝에 '한일전' 승리로 8강행을 확정했고, 세계랭킹 4위 터키까지 넘고 준결승행을 확정했다.

어렵고, 중요한 승부에서 국민도 선수와 함께 된다. 당초 오후 1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경기가 오후 9시 경기로 변경됐다. 덕분에 배구로 '불금'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원팀'으로 똘똘 뭉쳐 싸운다고 해도 한계는 있다. 한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난적 일본에 이어 터키까지 꺾으면서 세계랭킹이 14위에서 11위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브라질은 세계 랭킹 2위의 '우승후보'다.

앞서 A조 1차전에서도 한국은 브라질의 높이와 기술, 힘 등에 모두 밀려 세트 스코어 0-3(10-25 22-25 19-25)의 완패를 기록했다. 역대 상대 전적도 18승 45패로 한국이 열세다.

국제배구연맹(FIVB)이 '10여 명 중 단 1명'이라고 언급한 김연경이 버티고 있지만 반대로 김연경이 한국의 약점이 될 수 있다.

브라질은 앞선 예선에서 김연경을 집중 견제하면서 한국을 묶었다. 일본전서 무려 30점을 폭발시켰던 김연경이지만 브라질전에서는 가장 적은 12득점에 그쳤다. 세르비아전에서는 9점을 기록했지만, 체력관리를 위해 1·2세트만 소화했다.

김연경은 주장이자 에이스로서 올림픽 내내 많은 에너지를 코트에 쏟아부었다.

김연경이 4강까지 끌어왔다면 이제는 동료들이 더 과감한 플레이로 승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다양한 공격 루트가 만들어져야 김연경도 상대의 고립 전략에서 벗어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서브도 한국의 주요 전략이다. 한국은 앞선 터키전 5세트에서 박은진의 위력적인 서브로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면서 뒷심 싸움의 승자가 됐다.

서브로 물꼬를 트고 다양한 공격으로 힘을 분산하면서 난적의 빈틈을 뚫어야 한다.

무엇보다 '원팀'이 한국의 가장 큰 무기다. 한국은 끝까지 '함께'를 외치면서 어려운 상대들을 잇달아 제압했다. 앞선 터키전에서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고 터키를 압박하면서 승리를 만들었다.

한국은 3경기에서 폴세트 접전을 했고, 정신력과 조직력으로 모두 마지막 5세트를 승리로 장식했다. '원팀'으로 나서는 대표팀, 국민도 금요일밤 이들과 함께 땀을 흘린다.

한편 김연경의 영향력이 코트 밖에서도 거세다. 팬들은 터키전 승리 이후 '주장' 김연경의 이름으로 터키에 모욕을 기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근 터키에 산불이 계속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8강전이 끝난 뒤 터키 선수들이 눈물을 보인 이유도 이 산불이 있다. 승리로 국민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싶었던 선수들은 패배 후 눈물을 쏟아냈다.

팬들은 김연경이 오랜 시간 터키 리그에서 활약하기도 했던 만큼 '김연경', '팀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모욕을 기부하고 있다. 또 트위터 등 SNS를 통해 '#prayforturkey'라는 해시 태그를 달고 응원을 보내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이 6일 오후 9시 브라질과 2020 도쿄올림픽 준결승전을 치른다. 김연경을 구심점으로 '원팀'이 돼 기적의 행진을 펼치고 있는 대표팀을 위해 국민도 하나둘 뜨거운 응원전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진영, 6타 뒤집어라

여자골프 2라운드 공동 6위

고진영(26)이 2020 도쿄올림픽 골프 여자부 2라운드까지 선두에 6타 뒤진 공동 6위에 올랐다.

고진영은 5일 일본 사이타마현 가와고에시의 가스미가세키 컨트리클럽(파71·6648야드)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골프 여자부 2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언더파 67타를 쳤다.

중간 합계 7언더파 135타를 기록한 고진영은 이날 미네(일본)와 함께 공동 6위로 3라운드를 치

르게 됐다.

13언더파 129타로 단독 1위인 넬리 코다(미국)와는 6타 차이로 남은 이를 부지런히 쫓아가야 하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마지막 날로 예정된 7일 약전 후가 예보돼있어 3라운드 대회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일 54홀 경기로 바뀔 경우 6타 차를 따라잡기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코다가 하루에 9타를 줄이며 선두로 치고 나가는 바람에 한국 선수들의 올림픽 2연패 가능성

은 다소 낮아졌다.

고진영이 6타 차로 추격 중이고, 김세영(28)과 김효주(26)가 나란히 4언더파 138타로 선두에 9타 뒤진 공동 11위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인비(33)는 18홀 홀 보기로 3언더파 139타, 공동 24위다. 특히 대회가 7일 약전후 예보에 대비해 54홀 경기로 축소될 경우 우리 선수들이 추격에 나설 기회도 줄어들다.

전날 제강 온도가 40도를 넘는 폭염 때문에 선수들이 고생한 탓인지 이날 핀 위치 등 코스 세팅이 다소 쉬워졌고, 날씨도 1라운드에 비해 덜 더웠지만 한국 선수들은 타수를 양껏 줄이지 못했다. /연합뉴스

남자탁구 '일본 신동' 주의보

오전 11시 동메달 결정전

각성한 일본의 '탁구 신동' 하리모토 도모카즈(18)를 잡아라.

한국 남자 탁구 대표팀은 6일 오전 11시 일본 도쿄체육관에서 열리는 2020 도쿄올림픽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과 맞붙는다.

한국은 최근 5년간 일본과의 상대 전적에서 1승 1패로 팽팽하다.

이번 대회에서의 기세도 일본이 한국보다 좋

다. 일본 남자 대표팀은 혼합복식에서 중국을 꺾고 우승해 사상 첫 탁구 올림픽 금메달을 따냈다.

여기에 일본 탁구가 공들여 키워온 '신동' 하리모토가 개인 단식 부진을 딛고 단체전에서 제기량을 되찾은 점은 일본 대표팀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미 이른 나이에 기술적으로 매우 높은 경지에 올라있다는 평가를 받는 하리모토는 두 경기를 모두 역전승으로 잡아내며 정신적으로 한결 단단해졌다는 것을 보여줬다. /연합뉴스